대화합 구심점 확보

새 종정 추대이후 조계종

초파일 전 대사면 단행할 듯

조계종이 새 종정을 추대 종단의 정신적 구심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종단사태의 상처를 씻고 안정을 바탕으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후 곧바로 해인사로 향해 종정으로서의 '일성'을 뒤로 미뤘으나, 이날 원로회의 인사말에서 지난 해 종단사태를 거론하며 '종헌종법에 따른 종단 확립'을 강조했다. 종단사태의 아픔을 치유할 대화합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 기준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혜암스님이 94년에 이어 지난 해 종단사태 때도 일관된 입장으로 '개혁'을 향한 추진력을 보여줘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도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혜암스님은 지난 해 종단사태 때 정화회의의 중심인 월하스님과 다른 길을 택했으므로 이후 종정으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 섰다.

그러나 이날 원로회의에 참석하려던 벽암스님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정화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새 종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종단 내부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화합하려 한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이전 대사면 조치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추대를 위한 원로회의가 2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정 추대 이모저모

하루전 밤새 조율

○…원로회의 하루 전 원로의원들은 서울시내 앰배서더호텔에서 묵으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한때 후보가 9명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가 전해 진통의 정도를 짐작케 했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재가종무원들은 호텔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종고스님은 취재진에게 "내일이면 궁금증이 모두 풀릴 것"이라며 스님들의 숙소가 있는 3층 접근을 차단.

혜암-벽암스님 동승

○…2일 오전 호텔에 묵은 원로의원들은 총무원에서 마련한 승용차편으로 총무원 청사로 향했다. 전날 월하스님 종정불신임과 관련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 혜암스님과 벽암스님이 공교롭게 한 승용차 뒤좌석에 나란히 탑승. 그러나 서로 말없이 굳은 표정을 보였다. 벽암스님이 청사에 도착하자 한 스님이 "해종행위 징계대상자가 여기 왜 오냐"며 항의. 분위기가 나빠지자 고산스님의 지시로 호법부 스님들이 벽암스님을 앰배서더호텔로 모셨다. 벽암스님은 곧장 주석처인 공주 신원사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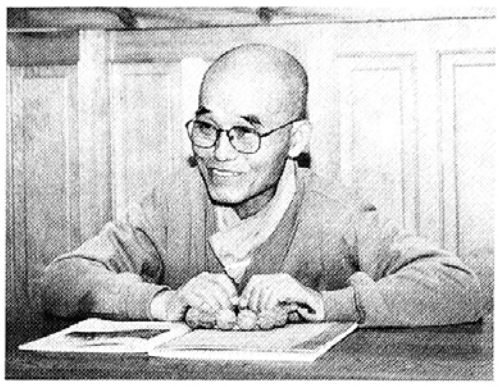
고령 원로들도 참석

○…회의시각인 2시가 가까워지면서 석주 비룡스님 등 원로의원들이 속속 도착. 석주스님은 90세의 노령임에도 회의장인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운경 비룡스님은 호법부스님들의 등에 업혀 회의장으로 입장. 녹원 도원스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으며, 원로회의 사무처는 5분간 사진촬영을 허용한 뒤 회의장 주변을 봉쇄.

50년 장좌불와 '선승'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종헌종법 수호' 원칙론 중시
방장 · 원로회의 의장등 역임



두타행을 몸으로 실천해온 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 94년 조계종 개혁불사때 개혁파 스님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한국불교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현 한국불교의 큰 어른.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는 '누구든 종헌종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칙론자.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종단현실에 처해서는 실천적 개혁의지를 드러냈던 혜암스님은 원칙과 소신,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비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94년 개혁불사때, 서암 전 종정스님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절친한 도반임에도 사사로운 정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을 정도로 개혁의 열의가 높았다. 다소 고집스럽다는 평도 있지만 종정후보가 거론될 때마다 늘 불자들 입에 오를 정도로 혜안을 갖춘 큰스님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혜암스님의 모습은 원칙을 고집하는 수행자 특유의 성품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출가 이후 줄곧 일중일식(日中一食)과 50년 장좌불와 참선수행을 실천해 오면서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귀감이 돼왔다. 95년 해인사 방장에 오르면서 해인사의 가풍을 "하루 네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선방수좌들이 오후에 불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데서도 이같은 면모는 잘 드러난다. 혜암스님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꼽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혜암스님은 16세때인 1945년 해인사와 인연을 맺었다. 출가 후 전국의 대중선방을 다 돌아다니며 참선공부에 매달렸다. 또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태백산 동암과 보조국사가 수행했던 지리산 상무주에서 오랜기간동안 토굴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때 혜암스님이 만든 '토굴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지금도 선방 수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혜암스님은 금오 · 효봉 · 경봉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큰스님들께 직언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혜암이는 조실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향곡스님 등과 함께 4년 결사안거를 수행한 혜암스님은 성철스님이 입적하고 나서도 돈오돈수를 지도한 성철스님의 뜻을 좇아 납자들을 지도해왔다. 그러나 돈오돈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욱 강조해왔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혜암스님은 46년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48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 송광사 · 범어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용맹정진했다. 81년 조계종 정화위원회 부위원장, 85년 해인총림 부방장, 91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93년 해인총림 방장과 9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오른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정의 자리

조계종 법통 잇는 최고의 어른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승랍 45년, 세수 65세 이상의 비구(比丘) 법계(法階) 대종사(大宗師) 가운데 원로의원(현재22명)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이 모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5년에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특별한 권한은 없으나 전계대화상 위촉권, 포상과 징계의 사면 · 경감 · 복권권, 종단 비상시 원로회의 제청에 의한 중앙종회 해산권 등을 갖고 있다.

종정 최장수를 기록한 성철스님은 종헌에 규정된 법적 지위를 떠나 불자들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와 시대를 이끌었던 우리시대의 선지식으로 아직도 추앙되고 있다. 반면 그리 길지 않은 통합종단(1962년 이후)의 역사속에서 종정의 지위와 역할을 둘러싼 잡음은 때로 종단 분규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계종 역대종정

초대	효봉스님
2 대	청담스님
3 대	고암스님
4 대	고암스님
5 대	서옹스님
6 대	성철스님
7 대	성철스님
8 대	서암스님
9 대	월하스님
10대	혜암스님

프로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탄성스님은 조계종 개혁불사의 공로자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는 종도간 화해와 종단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어른으로 팽팽히 맞섰던 양측 모두가 기대를 걸었을 만큼 대중의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에 걸맞게 스님은 1980년 10.27법난후 수습대책위원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지난해 조계종사태때 전국승려대회 대회장 등 종단이 혼란기에 처할 때마다 행정수반을 맡아 수습하는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과 함께 항상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자로도 귀감이 돼온 탄성스님은 1928년 충남 신도안에서 태어나 8.15 직전인 4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이듬해 3월에 사미계를 받았다. 55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후 15안거를 성만했다. 72년 법주사 주지를 지냈고 현재 괴산 공림사에 주석하고 있다.

원로회의 부의장
도원스님

도원스님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 41년 파계사에서 고송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49년 사미계를 51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파계사주지를 지냈다. 현재 파계사 조실로 있다. 81년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84년 조계종 선거관리위원장, 85년 제8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90년부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

1924년생인 종산스님은 48년 광주 자운사에서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49년 사미계, 54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4년 전남대 의대와 51년 자운사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54년 통도사 수선안거 이후 41하안거를 성만했다. 충북 개심사 주지와 제9대 중앙종회 임시의장, 법제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청주 보살사에 주석하고 있다.

종정스님께 바란다

"사부대중 정신적 귀의처 되소서"

▲도업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종정이라는 자리는 불교 법통 그 자체로서 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자리다. 때문에 종정스님은 종단의 자질구레한 일에 관여하시거나 시정거리에 나오시기 보다 언행을 천금보다 무겁게 하시어 모든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주셨으면 한다. 또 불교만을 보지 말고 천년 후를 보는 안목을 널리 펴시어 불자뿐 아니라 국민 대중,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사표가 되는 인류 공동의 선을 홍포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이 시대 아픈 곳을 감싸 안으시는 따뜻한 '산중의 호랑이'의 모습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쌀 한됫박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따뜻한 출행(出行)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종정 스님이 이렇게 법의 자리를 흔들림없이 지켜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행동을 보여 주실 때 종단의 발전과 불교의 중흥이 있고 불교가 대중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정덕스님(자비의 전화 회장)=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인해 상처입은 사부대중의 마음을 감싸안는 포용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특히 새 종정스님은 높은 수행력으로 대중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고, 종단의 대 소사에 관여하기 보다는 한국불교의 대표자로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각 종단을 화합으로 이끌어 주셔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불교를 지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신근식 (삼보법회 이사장)=조계종 사태로 인해 불교의 위상이 많이 격하됐다. 새 종정스님은 이런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 새로운 승풍 진작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스님들이 출가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 철저히 수행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인재를 양성해 잘 활용해 주시길 기대한다. 그래야 양성된 인재들이 종단 행정기관이나 전국 교구 본사 등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신심있게 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승 · 재가가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일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조계종이 새 봄을 맞아 새로운 종정스님을 모시게 된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겨울의 처참했던 아픔을 딛고 완전한 종단의 면모를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모셔진 종정스님은 부처님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불교의 법통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 법의 상징인 종정스님이 이판의 자리를 지킬 때 종단은 평온했고 그렇지 못할 때 시끄러웠던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한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 시대의 중생들에게 환한 법등을 밝혀 주실 분이 바로 종정스님이다. 새로운 천년은 법의 세기가 될 것이다. 물질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모든 중생들이 정신의 귀의처로 불교를 바라볼 때 그 앞자리에 종정스님의 주장자가 빛나고 있어야 한다.

"붓다가 살아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썼을 것이다!"

⋮

입문에서 깨달음의 완성까지—
이 시대의 구도자 무산본각(無山本覺) 선생이 완벽하게 복원해낸 붓다 수행법의 완결판!

쉽게 풀어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 2
전통호흡수련의 폐단을 극복하는 '자연호흡'의 세계

"100% 체험"

호흡수련, 이젠 '자연호흡'으로 한다!
언제까지 지식(止息)과 폐기(閉氣)로 자신의 몸에 무리를 줄 것인가? 들숨과 날숨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호흡으로도 얼마든지 氣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20년 수련 체험을 바탕으로 쓴 氣 수련의 새로운 지침!
■ 값 10,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全永光
오랜 공직생활(전 해양수산부 서기관)을 하였으며, 여러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강의하고 있다. '97년 제1회 국제기과학술대회 초청연사로 氣수련의 에커니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반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로 많은 수련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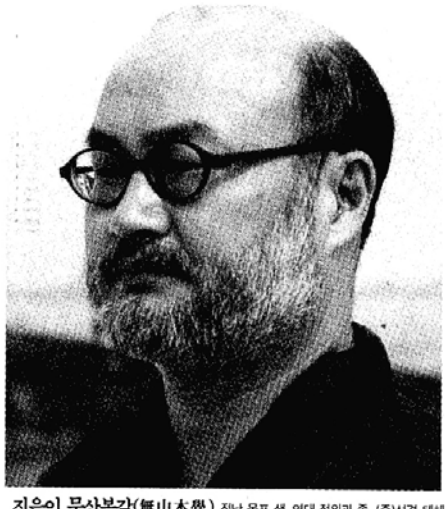
마음닦기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無山本覺 지음
값 12,000원(부록CD 포함)

마음수련의 正道를 밝혀주는
모든 수행인들의 필독서!

· 2,600년 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본격 수행 지침서.
· 방대한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수행 필독서.
· 일실된 수행법들을 복원하고, 북방 대승불교권의 간화선(看話禪) 전통까지 포용한 본격적인 수련 매뉴얼.
· 여러 종교의 수행법, 현묘지도(玄妙之道), 도가 등의 수련법을 종합하고 해석 · 비판 · 용해하여 재구축한 완벽한 수행 시스템.
· 영적 계발을 위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실천적인 테크닉의 기록.
· 인류 정신발전의 정화(精華)가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수행서.

■ 저자 초청 특강 및 워크샵
1999. 4. 3(토) 오후 2:30-5:30/참가비 6천원(선착순 입장)
■ 12시간 집중수련 워크샵
4. 10(토) 오후 3시-10시/1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5만원(선착순 마감)
주최: 정신세계원(747-7033/비원 옆 원서빌딩/안국역 종로3가역)

특별부록 ····· 禪定으로 이끌어주는 CD
무산본각 선생의 육성 가르침, 듣기만 하면 깨달음을 만난다!



지은이 무산본각(無山本覺) 진남 목포 생. 연대 정외과 졸. (주)신경 테헤란 지사장, 주(駐) 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 역임. 이란-이라크 전쟁중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됨. 영숙송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받음.

이제는, 더이상, 《한단고기》를 부정할 수 없다!

단군조선은 78개의 속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으며, 한반도는 삼한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중심지는 현재의 중원 대륙에 있었다…!
한 고대사 연구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마침내 긍지에 찬 민족사가 되살아난다—〈실증 한단고기〉.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등 방대한 문헌과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중국의 고지도들을 통해 단군조선 47대의 생생한 역사, 왜곡 · 축소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낱낱이 고증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륙사까지 새롭게 밝힌다.
이일봉 지음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實證 한단고기
단군조선과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대륙역사

《한단고기》
임승국 주해 | 10,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1